

요약

2025년 미국 및 버뮤다 보험시장의 전체 M&A 거래 금액은 14.4% 감소하였으나, 언더라이터 부문 총 거래 금액은 55% 증가하여 자본이 소수의 대형·전략적 거래에 집중되는 경향이 강화됨을 보여줌. 2026년에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특종보험 및 보험인수대리인(MGA) 부문으로 자본을 재배치하는 흐름과 생명·연금 부문과 자산운용의 결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

○ 2025년 미국 및 버뮤다¹⁾ 보험시장 M&A는 거래 수를 줄이는 대신 규모가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래에 집중하는 양상이 뚜렷해짐²⁾

- 전체 거래 건수는 455건으로 전년(519건) 대비 12% 감소하였으나, 언더라이터 부문 총 거래 금액은 276억 달러로 전년(178억 달러) 대비 55% 증가함

〈표 1〉 미국·버뮤다 보험 부문별 M&A 동향(2024~2025년)

(단위: 건, 십억 달러)

구분	거래 건수		총 거래 금액	
	2024	2025	2024	2025
언더라이터(계)	43	44	17.8	27.6
- 생명·연금(L&A)	11	18	11.1	16.6
- 손해보험(P&C)	32	26	6.7	11.0
보험중개 부문	476	411	32.1	15.1
합계	519	455	49.9	42.7

자료: Deloitte(2026), "2026 Insurance M&A Outlook: Eye on the Ball"

- 손해보험 부문은 거래 건수가 19% 감소하였음에도 5억 달러 이상 대형 거래가 전년 1건에서 5건으로 급증하면서 총 거래 금액이 64% 증가하였음
 - 아폴로(Apollo)가 보유하고 있던 아스펜(Aspen Insurance Holdings)을 솜포(Sompo Holdings)에 35억 달러에 매각한 거래(2025년 8월)가 대표적 사례임³⁾
- 보험중개 부문의 총 거래 금액은 53% 급감(321억 달러→151억 달러)하였으나, 이는 전년 아서 J. 갤러거(Arthur J. Gallagher & Co.)⁴⁾의 어슈어드파트너스(AssuredPartners) 인수(135억 달러)라는 초대형 거래의 기저 효과 때문인데 이를 제외한 실질 감소 폭은 약 19% 수준임

1) 버뮤다는 미국계 사모자본이 주도하는 재보험·특종보험 플랫폼의 주요 설립지로, 미국 보험 자본시장과 사실상 통합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어 미국과 함께 분석 대상에 포함됨. 본 분석의 대상은 미국·버뮤다 소재 보험회사의 전 세계 인수합병 및 해외 보험회사의 미국·버뮤다 소재 보험회사 대상 인수합병을 포함함

2) Deloitte(2026), "2026 Insurance M&A Outlook: Eye on the Ball"

3) Colin Kellaher(2025. 8. 27.), "Sompo Holdings to buy Aspen Insurance for \$3.5 billion", *Wall Street Journal*

4) Arthur J. Gallagher(2024. 12. 9.), "Arthur J. Gallagher & Co. Signs Agreement to Acquire AssuredPartners", press release

○ Deloitte에 따르면, 2026년 글로벌 보험 M&A는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특화 거래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

- 수익성이 낮거나 자본을 과도하게 소모하는 사업을 매각하는 한편, 비용 부담이 적은 갱신권·블록 인수·전문보험 플랫폼 취득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M&A 전략이 전환될 것으로 보이며, 비표준 특종보험(E&S)·보험인수대리인(MGA) 부문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전망임
- 생명·연금 부문에서는 보험회사들이 대규모 계약 포트폴리오를 일괄 매각하는 블록딜과 재보험 거래를 중심으로 M&A를 전개하고 있으며,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가 인수자 또는 자본 파트너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
 - 아쿠아리안 캐피탈(Aquarian Capital)이⁵⁾ 미국 생명·연금보험회사인 브라이트하우스 파이낸셜(Brighthouse Financial)을 41억 달러에 인수한 거래(2025년 11월)가 대표적 사례임⁶⁾
- 기술 M&A는 인수심사·보험금 관리 등의 AI 역량 강화로 전환될 것이며, 사이드카(Sidecar)⁷⁾·구조화 파트너십 등 대안자본의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

〈표 2〉 2026년 글로벌 보험 M&A 8대 특징

구분	핵심 방향	대표 사례
① 수익성 중심 재편	수익성 낮은 사업 매각, 비용 부담 적은 특화 거래 집중	Allstate 단체건강보험 매각 (12.5억 달러, 2025. 7.)
② 특종보험·E&S ¹⁾ ·MGA ²⁾	사모자본의 투자 관심 지속, 인수 역량 미검증 플랫폼은 가격 격차 확대	Sompo의 Aspen Insurance 인수 (35억 달러, 2025. 8.)
③ 보험중개: 소화·통합	대형 브로커의 시스템 통합·효율화, 틈새상품 인수	Brown & Brown의 Accession Risk Management 인수(98억 달러, 2025. 6.)
④ AI 역량 고도화	인수심사·보험금 관리와 연계된 응용 AI 기업 인수로 전환	CCC의 EvolutionIQ 인수(2025. 1.)
⑤ 생명·연금·자산운용 결합	블록딜·재보험 중심, 사모·자산운용사 역할 확대	Aquarian Capital의 Brighthouse Financial 인수(41억 달러, 2025. 11.)
⑥ 크로스보더 자본 유입	일본·중동 자본의 미국 시장 진입	Munich Re의 NEXT Insurance 인수 (26억 달러, 2025. 7.)
⑦ 단체보험 규모	기술·서비스 역량 확보를 위한 규모 경쟁, 소규모 사업자 흡수 압력 증가	건강보험회사 HCSC의 생명·장애보험 사업 Symetra에 매각(2025. 10.)
⑧ 대안자본·사이드카	보험회사를 직접 인수하지 않고도 사모펀드·연기금 등 외부 투자자와 공동으로 특정 위험을 인수하는 방식 확산	Fortitude Re 7억 달러 재보험 사이드카 출시(2025. 10.)

주: 1) E&S(Excess and Surplus Lines): 비표준 특종보험을 말함

2) MGA(Managing General Agent): 보험인수대리인을 말함

자료: Deloitte(2026), “2026 Insurance M&A Outlook”을 바탕으로 재구성함

○ 대형 거래 중심의 선택적 M&A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 손해보험 시장에서 경쟁 심화로 보험료율이 하락하고 자체 성장이 어려워질수록⁸⁾ M&A를 통해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려는 유인은 더욱 커질 전망임

- 일본계 보험회사와 중동 소버린 펀드 등 해외자본의 미국 보험시장 진입이 지속되는 가운데, 수익성이 낮거나 경쟁 역량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대형사에 흡수되거나 파트너를 찾도록 압박받는 상황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

5) 아쿠아리안 캐피탈(Aquarian Capital)은 보험회사 인수 및 자산운용을 주력으로 하는 미국계 대체투자회사임

6) Ateev Bhandari and Arasu Kannagi Basil(2025. 11. 6.), “Aquarian Capital to buy insurer Brighthouse in \$4.1 billion deal”, Reuters

7)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외부 투자자(사모펀드, 연기금 등)와 함께 특정 위험만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임

8) 이를 시장연화(Market softening) 현상이라고 하며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로 보험료율이 하락하고 인수 조건이 완화되는 국면을 의미함. 반대 국면인 경성화(Hardening)는 손해를 악화 등으로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시기를 가리킴